

새해 새설계  
'95

현대건설(주)

## 원전 건설의 세계화 추진



현대건설(주)가 건설하고 있는 영광원전 3, 4호기

1994년은 건설업계에 큰 획을 긋는 전환기가 된 해였다. 성수대교의 붕괴, 마포 가스기지의 폭발 등으로 민심을 불안에 떨게 한 일련의 사고들은 건설업계를 비롯한 국민, 정부 모두에게 건설 안전에 대해 새로운 각오를 갖게 하는데 충분했다. 하지만 원자력계에서는 원자력폐기물 처리장 건설 부지가 선정되어 원자력폐기물 사업에 희망을 주었고 또한 북한 경수로 지원 논의 등으로 원자력이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던 해였다.

이런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고조된 열기속에서, 금년에는 중국 및 중동, 동남아시아 각국은 2100년까지 56

기 정도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필리핀과 이란도 원전 재개계획을 가지고 있어 아시아는 올해 원전건설 수주 각축장으로 부상되고 있다.

또한 UR 서비스 협상으로 인한 건축, 토목, 일반건설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허용으로, 1996년에는 외국회사 지사의 설립이 허용될 예정이고, 1998년부터는 단독출자 100%가 허용된다.

이같은 주변 정세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부터 건설에 참여한지 25년이 되는 현대건설(주)은 1995년을 맞아 그간의 경험과 축적된 기술

로 우리나라 원전건설의 세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현재 건설중인 영광원자력 3, 4호기는 그 성공적인 사업수행은 물론 시공기술 자립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현대건설(주)는 국내 최초로 고등안의 축척된 시공경험을 관련회사(설계회사, 기자재 제작회사 등)에 반영하는 PRE-PROJECT 업무를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자립 목표를 달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월성 2호기 건설에서는, 월성 1호기의 시공 경험은 물론, 다년간의 경수로 원전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계획에 따라 원활히 수행되고 있어, 이제는 어떤 형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관련시설이라도 최상의 발전소 및 시설로 건설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차 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다목적연구용 원자로를 건설하고, 선진 외국회사와 기술협정을 맺어 그들과의 기술 협력을 통하여 수출 전략형 원자로를 독자적으로 개발, 원전 건설을 TURN-KEY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축척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원전 건설능력을 가지고 있는 현대건설(주)는 이제 세계의 우수기업과 경쟁하여 기술능력을 인정받고 개방화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중책을 짊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건설(주)는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세워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 마케팅 능력 강화

세계화, 개도국의 부상, 보호주의 강화 등과 같은 국제경영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케팅 체계를 선진화하고, 현지화를 통한 고유한 마케팅기술 습득 및 각 지점을 통한 영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로 DATA BASE를 구축하여 수주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

### 우수전문건설업체 확보

기술력 있는 전문건설협력업체가 부족하여 계열화의 밑거름에 저해를 주었지만, 올해는 각종 우수협력업체

육성방안을 확대 실시하여 궁극적으로 협력업체를 전문화하여 계열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

### 기술인력 확보 및 교육투자

현재 BECHTEL사의 기술 협력을 비롯, 외국 굴지의 회사들과도 기술협력을 체결중에 있으며, 또한 기술인력들의 해외연수를 통하여 기술의 전문화를 유도, 신기술 연구에 앞장서서 시공의 과학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21세기에 대비한 교육으로 폐쇄적 발상방식을 개방적인 방향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우수인력의 확보 등으로 원자력 관련공사를 완벽한 TURN-KEY 방식으로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 그린라운드 대처 조직 구성

그린라운드가 UR 못지 않은 충격을 가져올 것인가는 지금 판단할 수 없지만 환경기준의 국제적 균일화, 지구환경보호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상품의 무역 규제강화, ISO 14000에 의한 환경 경영 국제표준화 등은 우리 산업에 큰 영향을 가져올 소지가 충분하므로, 부서간 정보공유의 시스템화를 통해 조직 역량을 극대화 하여 대처하도록 할 것이다.

---

### 품질향상 도모와 안전사고 예방

ISO 품질 SYSTEM 정착, 사내감리제도 정착, B/S(Before Service), A/S(After Service) 체계의 확립, 품질시공에 대한 연구 및 도입으로 품질 제일주의를 정착시킨다.

건설시장은 경제적인 생활 수준에 따라 시공우선의 개념에서 안전우선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안전시설과 시공상의 표준화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이상과 같이 현대건설은 21세기의 세계화로 가기 위해서 Project Management와 관련된 기술과 기법을 정착시켜 세계의 초일류 건설업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인류가 꿈꾸는 미래를 현실로 앞당겨 실현하는 개척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